

#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통일평화연구원장)

이상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인의 대북태도나 정책지향, 그로 인한 남남갈등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미지의 영향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남남갈등의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볼딩은 이미지를 주관적인 지식(subjective knowledge)으로 정의했다(Boulding 1956, 5~6). 이 주관적인 지식으로서의 이미지는 과거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고 구성되지만, 결코 고정적이거나 항구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볼딩은 오히려 이미지가 사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미지가 사회를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도 계속 이미지를 재생산한다(Boulding 1956, 64).” 이러한 볼딩의 논의를 계승한 허먼의 이미지 이론(image theory)은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분류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남녀 823명에 대한 일대일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유형화하고 그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주제어: 북한, 정체성, 이미지 이론, 여론 조사, 척도 개발

## I. 왜 이미지인가?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에는 특이한 면이 발견된다. 그것은 북한 관련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관련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견해는 매우 분명하게 갈리고 그로 인한 논란의 강도도 매우 격심하게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대외정책이나 갈등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견해차나 예측의 불일치 내지 실용적 판단의 다른 차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정서적 예단이나 감정적 판단이 선행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은 물론 북한관련 쟁점이 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되고 또 체제대립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던 탓이 크다. 비참한 전쟁까지 치른 냉전구도하에서 모든 영역에서 북한에 저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체제대립의 성격도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는 탈냉전과 세계화의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남남갈등은 좀처럼 약화되지 않고 어떤 점에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과연 북한과 관련한 한국사회 내부의 논란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흔히 언급하듯 좌파와 우파의 이념대립,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견해차가 그 핵심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족한 것인가? 합리적 판단과 소통에 필요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애매한 탓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상황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체제대립으로 판단하는 지적 아비투스까지 지금도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탓인가, 또는 한국사회 내에 합리적 의사소통능력이 약하거나 소통의 제도화가 미약한 탓으로 이해해야 할까? 이 연구는 이런 질문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과 정보에 바

탕을 둔 종합적 관점, 즉 ‘주관적 지식으로서의 이미지’이다. 어떤 형태로든 획득하게 된 일정한 시선과 관점을 고정된 이미지로 구성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부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나름대로 적절히 해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이고 복잡한 현실에 대한 정치적 대응력을 높인다는 환상을 가질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 고정관념이 한국사회 내부의 북한관련 논란과 정책적 대립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는 가설을 검증해보려는 것이다. 고정관념이나 이미지가 차지하는 독립변수로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된다면, 갈등의 수준을 낮추거나 소통을 향한 새로운 대응방식을 모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이 연구는 한국인의 대북태도나 정책지향, 그로 인한 남남갈등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미지의 영향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남남갈등의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단 이후, 우리에게 북한은 군사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적(enemy)이었다. 이런 적 이미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는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들 역시 교육이나 군대의 경험을 통해 적으로서의 북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사회화하고 있다. 또 정치적·이념적으로도 북한의 적대성은 헌법과 법률체계 속에서 작동하고 간간히 생기는 남북간의 충돌과 격렬한 대립이 이런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하지만 탈냉전, 민주화, 경제성장 및 정보화 등의 효과로 이런 이미지가 크게 동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을 통해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선언을 했다. 1990년대 이후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상호불가침과 화해’를 약속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정치적 환경의 전환과 사람들의 의식 사이에 적지 않은 편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격차를 최대로 심화시켰고 동시에 이전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결정적 계기이기도 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화하고 유연화했다. 일부에게 이런 변화는 탈냉전에 맞추어 통일을 준비하는 적절한 이미지 재구성과 정으로 받아들여진데 반해 일부에게 이것은 적대적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와해시키는 잘못된 이미지 효과로 간주되었다.

이런 결과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북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들이 혼재하게 되었다. 북한은 적대국이면서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일부이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별개 국가와도 같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상이한 성격과 결부된 다중적 이미지는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지향으로 나타나 남남갈등 및 정치적 균열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평가의 형태 또는 객관적 정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갈등도 실제로는 그 바탕에 고정된 이미지 효과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을 어떤 존재로 파악하는가는 사실 객관적인 정보보다도 주관적으로 지닌 이미지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 집단과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집단 사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런 인식차를 가져온 요인은 불분명하다. 왜 적대적으로 보는가, 또는 왜 협력대상으로 보는가는 객관적인 요인보다 이미지 효과가 클 수 있다. 물론 그 이미지는 역사적으로, 또 특별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형성된 것이겠지만 구체적 사건이나 특정 정보의 습득으로 쉽게 바뀌기 어려운 요소가 된다. 한 사례로 천안함 사건처럼 거대한 충격을 가져온 경우에서조차 사람들의 반응은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제적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정도는 이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는데(박명규 외 2010, 216-247쪽) 이런 차이

는 정보의 객관적 양에 의존하는 것이기보다 기존의 이념, 이미지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정보에서 출발하였지만 사건의 성격과 정부대응에 대해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은 이미지의 영향력을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긴장은 흔히 남남갈등으로 일컬어지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많은 사람들이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남남갈등은 반드시 정치적 진보와 보수, 또는 이념적 좌파와 우파 사이의 긴장만은 아니다. 개념적으로 혼란이 많은 친북과 반북의 대립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치 못하다. 분석적으로 보면 남남갈등은 한국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미지와 새로이 나타나는 정보,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미지의 재구성이 불러오는 사회심리적 현상으로 이해가능하다. 정치적 갈등은 오히려 이런 사회심리적 이미지 긴장의 반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의 성격과 유형, 그 변화를 분석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탐색해 봄으로써 북한과 관련한 논의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뒤 따르는 다음 절에서는 이미지 이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적국”, “동맹국”, “야만국”, “종속국” 이미지를 설명하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이미지 유형을 이념형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어 데이터 및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서술한 후,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북한 이미지의 특징 및 분포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 Ⅱ. 이론적 검토

집합적 단위들의 상호관계에서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다양한 논자들이 여러 이론적 시각을 갖고 접근한 주제다. 이미지라는 개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식, 태도, 문화, 가치, 정체성, 감정, 정서 등의 개념을 통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탐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문화적 변수들을 강조하는 문화연구자들, 정체성의 구성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자들, 역사적 요소를 중시하는 역사주의자들 등 다양하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국제정치학, 심지어 경제학 등에서 이런 주관적 의식이나 이미지 변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우리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준에서 기존의 연구경향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해외에서의 연구와 국내에서의 연구를 포괄하면서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보겠다.

### 1. 정체성 이론과 구성주의

사회학자 미드(G.H. Mead)와 쿨리(C.H. Cooley)는 자아와 타자 개념이 쌍생아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에 주목한 사람들이다. 쿨리는 자아의 개념 자체가 이미지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했다. 그의 '영상자아(looking-glass self)' 개념은 개인의 주체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친밀한 일차집단 내지 준거집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미지에 기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미드는 쿨리의 논지를 더욱 발전시켜 '주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와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 개념을 구분하였고 그러한 타자개념의 발전이 사회를 가능케 하

고 자아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이론화했다. 미드의 논지는 타자에 대한 이미지가 단순히 특정 주체에게 주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 이미지의 형성은 자아 이미지의 형성과 뿔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버거(P. Berger)와 루크먼(T. Lukmann)은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현상학적 지식체계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밝힘으로서 이후 실재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을 이론화하고 구성주의적 관점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회학자들의 이런 이론적 작업은 정치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의식은 늘 정치적 관계에 개입하는 주요한 타자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발전하게 된다.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중시되던 민족정체성이 언제나 외부와의 전쟁경험을 중시하고 적의 위협을 강조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음은 이런 측면을 잘 드러낸다. 또한 상징적인 이미지나 문화적 재구성을 통해 이러한 정체성을 유지, 강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연구들이 확대되었다. 물론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결코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새로운 정보, 변화하는 조건, 상황에 대한 재정의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재구성과 갈등 등을 통해 주체의 성격은 물론이고 여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적 틀 자체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연구에서 사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해석과 상징화가 연구의 대상으로 중시되는 변화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정체성의 중요성이 구성주의로 적극 수용되었다. 블룸(Bloom 1990)은 정체성에 대한 사회학 이론을 국제정치이론에 접맥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체성 이론의 유용한 자원으로 미드, 프로이드(Freud), 에릭슨(Erickson), 파슨즈(Parsons), 하버마스(Habermas) 등을 꼽았다. 이들 사회학자 및 심리학자들은 정체성이 독특한 경험과 정

서, 내면적 동기구조와 연관되어 형성되며 그것은 공리주의적인 합리성 모델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요소임을 강조했다. 블룸에 따르면 대중의 행위이론과 사회심리학적 분석수준을 중시하는 정체성 이론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의 대립적 경향들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그 질문이란 첫째, 인간은 사회체계 분석의 주체인가 객체인가, 둘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야만적인가 아니면 협조적인가, 그리고 셋째 인간사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제도화되는가 아니면 훨씬 더 복잡적이고 다양한가이다. 블룸은 정체성 이론을 통해 기존의 지적 대립구도, 다시 말해 역사주의자와 행태이론가,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 그리고 국가중심적 분석과 구조주의적 분석의 대립을 넘어서는 이론적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홀(Hall 1999) 역시 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 민족정체성의 형성을 설명하고 이것이 국제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그는 근대적 국민국가질서 자체가 독특한 정체성, 다시 말해 민족정체성이라는 집합적 이미지의 형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기집단에 대한 집합적 정체성은 곧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다른 주체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인지구조가 근대적 국제질서의 틀을 구성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 2. 국제정치에서의 이미지 연구

볼딩은 국제정치 영역에 이미지 변수를 적극 도입하고자 했다. 그는 한 주체의 행위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지식(subjective knowledge), 즉 특정 사물에 대한 이미지에 의존한다고 본다(Boulding 1956, 5~6쪽). 이 주관적인 지식으로서



의 이미지는 과거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고 구성되지만, 결코 고정적이거나 항구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볼딩은 오히려 이미지와 사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미지가 사회를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도 계속 이미지를 재생산한다(Boulding 1956, 64쪽).” 사회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시킨다. 의례나 각종 기구를 통해 제도화한 이미지는 상당한 안정성과 함께 복잡한 사회구조나 현상들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개념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볼딩은 특히 국가 이미지가 국제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이미지는 한 나라가 다른 국가를 바라보는 이미지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물론 다양한 과거의 경험과 복잡한 관련성들의 누적적 결과이고 또한 사회 내부에서도 지배층과 일반인 사이에서 동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집합적 이미지는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국가 이미지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극단적인 경우 매우 병리적이고 위험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서 위험과 안전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는데 그 국가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각 국가는 고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잘 알려진 예로는 “언클 샘”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미국, “존 불”과 영국, 그리고 흔히 춤추는 곰으로 빗대지곤 하는 러시아의 이미지 등이 있다. 볼딩은 이 각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국제적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을 지적한다(1956, 109~111쪽). 외교 정책은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 기초하여 세워지는데, 상대방이 신뢰할 수 없으며 호전적이고 공격의사를 갖고 있는 적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쉽게 군비 경쟁이나 안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허먼은 볼딩의 이미지 이론을 인지심리학 개념인 스키마(schema)와

접목시켜 국제정치학 이론으로 발전시켰다(Herrmann 1985 ; 1986). 허먼에 의해 재정의된 국가 이미지는 특정 국가에 대해 구조화된 인지의 모음이다(Herrmann and FischerKeller 1995). 허먼(1985)은 또한 국제관계에서의 “이미지(image)”는 자신이 속한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미지를 갖는 이유는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이미지를 통해 정당화시킴으로써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허먼은 타국에 대한 이미지는 양국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구조적 관계인식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허먼에 따르면 그 세 가지 차원은 (1) 양립가능성(goal compatibility), (2) 상대적 국력(relative power), 그리고 (3) 문화적 지위이다(Herrmann and FischerKeller 1995, 425~427쪽). 예를 들어, 자국과 군사력이나 문화적 지위 면에서 비슷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타국은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고, 군사적 공격 혹은 봉쇄를 통해 이 위협을 제거하려는 충동을 가져온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자국의 윤리적 이미지 유지에 긴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들은 “적국” 이미지를 채용하게 된다. 이 적국 이미지는 상대방을 포괄하고 적대적인 동기를 가진 존재로 묘사하며, 따라서 폭력을 동원해서 이 사악한 국가를 제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적국 이미지를 가진 외집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동기 및 행태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인지적 편향과 결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 상대방 국가의 죄 없는 국민들에 대한 폭력 행사라는 윤리적 긴장 또한 해결될 수 있다.

〈표 1〉 국가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

양립가능성	타국의 상대적 국력	타국의 문화적 지위	이미지	타국에 대한 외교정책
양립 가능	같음	같음	동맹국	제도적 협력
양립 불가	같음	같음	적국	봉쇄, 공격
양립 불가	약함	낮음	종속국	개입, 간섭
양립 불가	강함	낮음	야만국	유화, 양보
양립 불가	강함	높음	제국	독립
양립 불가	같음	쇠퇴함	쇠퇴국	관계수정

허먼의 이미지 이론을 도식화하면 위의 표와 같은데 그의 연구는 국제 정치에서 국가 이미지 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강대국 간의 대외전략, 다시 말해 국제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중심의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 이미지를 ‘국가’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한 사회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 복수 이미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닌다.

### 3. 북한연구와 이미지

북한연구 및 남북관계론에서 이미지 변수는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분석적 연구 차원에서 잘 활용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데올로기적 규정이 매우 강한 상황과 전쟁 이후의 적대적 대립, 너무 총체적이고 공고한 체제대립적 구조로 인해 이미지의 독자적 규정력을 주목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탓일지 모른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다양화의 맥락 속에서 이미지 변수가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이런 점을 강조한 연구들은 1980년대 이래 북한바로알기 내

지 탈이데올로기적 북한연구를 표방한 연구자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평가, 정책적 전제들이 과연 ‘실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왜곡된 어떤 이미지의 결과인지에 대한 성찰적 분위기가 생겨났다. 냉전적인 역사인식, 사회인식, 문화인식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과 자성, 대안모색의 흐름들이 분출했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의 시기에 이루어진 비판적 연구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실체’와 동떨어진 것으로 이념적 또는 정치적 프리즘으로 왜곡된 이미지의 소산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인의 북한인식이 고정관념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흔히 지적되듯 공산당은 머리에 뿔이 난 존재처럼 여겨졌던 비현실적 이미지들이 1990년대 이후 깨어지면서 고정관념의 허약함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종석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효과’(mirror image effect)라는 두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는데 거울영상효과는 “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인 반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과”로 정의된다. 그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활용된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두 당사자가 서로를 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미지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거울에 비친 모습과 실제 모습의 관계처럼 위치만 정반대될 뿐 생긴 것은 똑같은 상태”가 되는 상황이 남북간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객관적 현상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증오 같은 정서를 동반하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의 반사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연결되는 또 다른 연구로 남북한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양자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미지 효과를 뒷

받침하였다. 박명림은 ‘대상관계동학’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남북간에 상호작용하는 동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남북한이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됨으로써 양자의 밀접한 내적 동학이 작동했다고 보았다. 김동춘은 한국전쟁 전후의 정치적 혼란과 억압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창출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김성보의 역사학 연구에서도 남북한이 각기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이데올로기 효과와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또 남북한을 각각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하여 일대일 체제대립의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과 남한이 각기 상이한 이미지의 주체로 설정됨과 동시에 그 이미지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점에 주목한 나머지 이미지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그 배후에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경도된 특징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는 한국사회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 더 강조되는 편향을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내부의 여러 이미지들을 분석적으로 다루기보다 평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오랜 냉전적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초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 이미지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크지 못한 한 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문화연구나 담론연구가 부각되면서 이미지나 상징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는데 남북관계의 실상이 미디어나 정보, 교육과 각종 상징화를 통해 어떻게 달라지고 재구성되며 심지어 왜곡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확대되었다. 상징, 매체, 역사해석, 이미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남북한 체제 형성과정에서 이미지와 상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각종 정치담론과 이벤트,

상징물과 영화, 문학적 형상화, 표어 등이 모두 분석의 대상이 되고 논리적인 신념체계보다 집단적인 소속감과 자긍심의 구성에 더 많은 관심이 부여되었다.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에서 민족적 상징화를 위해 어떤 요소들이 활용되고 문화적으로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졌지만 이런 연구경향도 체제와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연계시킴으로써 이미지가 한국사회 내부의 주요한 변수로 설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류학자 그린커(Grinker 1998)는 남북관계에 이미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일과 관련한 담론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구조주의적이면서 심리적인 분석이라고 간주하는데 남북관계가 독특한 ‘자아/타자’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인의 통일담론이 이성적인 논리라기보다 상상과 이상, 환상이 뒤섞여있는 유토피아이면서 동시에 집단적 상실감에 대한 충분한 애도가 불가능한 상태를 봉쇄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담론 속에 사실은 매우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는데 따라서 한국인들이 ‘민족’이나 ‘통일’을 이야기하는 정서적 바탕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들, 상실감이나 애도, 증오, 또는 불쾌감이나 두려움 같은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이런 요소들의 복합체로서의 ‘한’이 한국인의 통일담론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면서 이런 내면적인 정서가 상징적인 형태도 재현되는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타자’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린커의 분석은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심리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타자화 과정이 어떤 ‘재현’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한국인의 자기정체성과 결부되는지, 또 통일담론의 양가적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미지와 정체성의 상호성을 잘 부각시켰다고 보여진다.

### Ⅲ. “북한 이미지”의 개념과 유형

남북관계에서의 북한 이미지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 이미지’의 일종이면서도 그렇게 규정하기에 근본적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이미지이다. 국제정치에서의 ‘국가 이미지(national image)’는 독립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분명히 ‘국가 이미지’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결코 일반적인 ‘국가 이미지’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없다. 북한은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남한과 복잡한 역사적·문화적·정치적·심리적 연관을 갖고 있는 대상이어서 일반적인 ‘국가 이미지’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다. 동시에 반세기 이상 별개의 정치체로 존속해온 북한이 특수한 ‘국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세 가지 모순적인 속성을 함께 지닌 독특한 관계로 북한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간주된다. 가장 먼저 북한은 정치군사적 의미에서 적대적 존재다. 북한은 이념적으로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는 체제임과 동시에 한국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멸절을 기도했던 실질적인 적대세력이다. 비무장지대의 냉엄한 현실, 대한민국 국군의 일차적 안보관심은 모두 북한의 적대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은 한국에게 통일되어야 할 형제공동체이기도 하다.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도 남한과 꼭 같이 오랜 단일민족의 일부이며, 외세에 의해 나누어졌을 뿐 하나 되려는 통일의지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족집단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은 적대적 이미지보다 동포로서의 민족적 동질성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된다. 한편 유엔에의

동시가입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에 독자적 정치체로서의 국가성·독자성을 매우 강화시켜온 셈이어서 일종의 ‘유사 국가’적 성격을 지닌다. 한마디로 북한과 관련한 서로 다른 이미지가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복잡성은 분단 이래 남북관계가 구성된 제도적 맥락을 이해할 때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모순적 이미지의 공존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한 주체에게 상이한 이미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 사회 내에 상이한 이미지를 고수하는 복수의 하위주체들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자가 특정 주체 내부의 인지부조화나 분열증적 사고, 또는 다중정체성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후자는 전체 사회 내부에 상이한 이미지를 고수하는 하위주체들의 대립적 공존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현실적으로는 양면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념형적으로 존재 가능한 이미지의 유형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국가 이미지(national image) 개념을 원용하여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일단 ‘북한 이미지’(North Korea Image)로 개념화하고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이념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표 1>에서 허먼의 세 가지 구조적 관계인식의 차원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국가 이미지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이 허먼의 틀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데 허먼 이미지 이론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논리에 적합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간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남북관계에 적용시키기에는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허먼이 말한 세 가지 차원에서 구조적 관계인식—양립가능성, 상대적 국력, 문화적 지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차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한 요소로는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서로를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런 속성은 일반적인 국가관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조건이다. 남북한이 각기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최고목표도 통일이지만 실제 주민들의 의식 속에도 통일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요소다.<sup>1)</sup> 기존의 이미지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국가간 관계의 구조에는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또한 허먼의 틀에 있는 제국 이미지는 남북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남북의 어느 쪽도 절대적인 헤게모니를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종속국이나 쇠퇴국의 개념도 엄밀하게 구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속국과 쇠퇴국의 항을 하나로 묶고 허먼의 구조적 관계인식의 차원에 ‘민족동질감’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여 유의미하다고 간주되는 여섯 이미지 유형을 구성하였다. 이 유형을 도식화하여 이미지 유형과 그에 부수되는 전형적 감정, 그리고 예상되는 정책선호의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구조적 관계인식과 북한 이미지

구조적 관계인식				이미지
양립가능성	상대적 국력	문화적 지위	민족동질감	
갈등	북=남	북=남	no	적대국
갈등적 협력	북<남	북<남	no	종속국
갈등	북>남	북<남	no	야만국
협력	북=남	북=남	yes	동반국
협력적 갈등	북<남	북<남	yes	독재국
협력	북<남	북=남	yes	동포

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2010년에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1,200명의 응답자 중 남북통일이 매우, 혹은 약간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59%였다. 비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0년 이후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한국인들은 남한과 북한이 궁극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상의 이미지 유형은 무엇보다도 이념형적 구성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미지의 유형으로 남북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척도로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들 유형은 서로 간에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유형들은 중첩이 불가능하지만, 어떤 이미지는 서로 일정한 부분 겹칠 수 있다. 실제의 북한 이미지는 아마도 이들 여섯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되 조금씩 혼합되는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여섯 유형을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적국 이미지

적국 이미지를 지닌 대상은 매우 강력한 위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국력과 문화에서 자국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서 동시에 자국에게 매우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적국은 결코 후진적이거나 비효율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적국 이미지는 매우 강력한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적국 이미지를 공유하지 않는 자국의 시민들은 종종 적국에 대한 옹호자 혹은 심지어 반역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적국 이미지는 위협감뿐만 아니라 분노, 좌절, 부러움, 공포, 불신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종종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적국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적국의 성공이나 승리는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국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적국은 그 불행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경우가 흔하다. 적국은 경쟁의 대상이며, 적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그 경쟁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적국은 자국과 비교하여 국력이나 문화적으로 손색없는 상대이기 때

문에, 적국과의 경쟁 혹은 갈등에서 자국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적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세정책보다도 강고한 수세정책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적과의 전면적인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기껏해야 절반 정도라고 판단될 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적국이 더욱 강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정책일 것이다.

적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믿어지며, 그들 또한 우리를 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고정관념(stereotype)이 적국에게 덧씌워진다. 이런 고정관념은 종종 안보 딜레마를 불러일으키며, 치열한 군비경쟁 결과 양국 간에 피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높다.

## 2. 야만국 이미지

야만국 이미지를 가진 상대국은 적국과 마찬가지로 항상 자국에게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야만국은 국력은 우월하나 문화적으로는 뒤떨어진 상대로 인지되기 때문에 적국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 적국이 그 효율성과 경쟁력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때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비해 야만국은 부정적인 시선과 멸시의 감정과 더 친화력이 높다. 야만국은 멸시나 경멸의 이미지를 동반하지만 힘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분노 및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야만국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자신의 우월한 국력을 한껏 이용하여 자국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야만국에 대한 감정이나 이미지를 공유하지 않는 자국민들은 겁쟁이 혹은 반역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야만국은 명백하게 국력 혹은 군사력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공격이나

봉쇄는 야만국을 상대하는 데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패할 것이 분명한 상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전략은 직접적 갈등을 최대한 삼가는 것이다. 혹은 야만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맹국을 찾아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다.

### 3. 종속국 이미지

종속국은 국력과 문화적 지위가 모두 자국보다 열등한 국가에 대해 형성되는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원천적으로 무력하거나 무능한 대상, 또는 최근에 그 힘이 약화되고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것으로 독자적인 생존이나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종속국은 그다지 긍정적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국이나 야만국과 같은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약간의 멸시와 동정, 시혜의 느낌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고 종속국의 정치체제도 다소의 유연함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즉 종속국의 의사결정과정에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외국과의 협력을 반대하는 강경파와 달리 온건하고 책임감 있는 엘리트들은 자국과 협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믿는다. 종속국은 그들보다 우월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종속국의 엘리트와 국민들은 우리와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종속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립책을 고집하는 강경파로부터 온건파와 종속국의 국민들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종속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멸시와 동정의 감정이 대표적으로 작동한다. 이 멸시의 감정은 종종 종속국과의 접촉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정의 정서로 인해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선택할 수도 있다.

#### 4. 동반국 이미지

동반국 이미지는 북한을 동등하면서도 친근하며 모든 점에서 협력과 동조가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미지로서 허먼이 말한 동맹국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다. 허먼의 동맹국은 자국과 이해관계가 양립가능할 뿐 아니라 국력이나 문화적 수준도 대등한 국가로서 서로 간에 협력과 도움이 가능하고 또 유익하다고 믿어지는 대상이다. 동반국의 지도층은 합리적이고 온건하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반국은 자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되며, 갈등보다는 협력이 동반국에게도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간주되고 동반국의 지도층과 국민 모두가 평화로운 양국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동반국은 강압적 무력행사보다는 합리적인 대화를 앞세우기를 좋아하며, 조건이 맞는 상대라면 얼마든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동반국 이미지와 결부되는 감정은 신뢰, 애정, 존경, 우호감 등이다.

동반국이라는 이미지는 같은 민족이면서 형제와 같은 또 다른 정치체제를 구성한 북한이 국력이나 문화적 지위에서 큰 차이가 없이 남한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현재의 국면에서 볼 때 이런 동반국 이미지는 다소 적합성이 낮아 보이지만, 북한이 아닌 주변국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 대한 민족주의적 경계감에서 북한을 판단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독도 분쟁에서 남북한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북한을 동맹국과 유사한 동반국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5. 독재국 이미지

북한을 한반도 북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일인 독재체제하에 고통 받고 있는 동포집단으로 파악하는 이미지를 말한다. 북한이 주체사상에 의해 전체주의적으로 지배되며 공산당 일당독재와 김일성 개인숭배로 특징지어지는 억압적인 체제로 이해되는 것이다. 전근대적 왕조, 폭정, 사회주의 왕조 등의 말에 동반되는 비민주성, 인권억압, 전체주의적 성격 등이 특징을 이룬다. 동시에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로서의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중적인 시선을 갖게 된다. 즉 지배층은 근본적으로 적화야욕을 갖고 있는 적대세력이자 북한 인민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보지만 북한의 일반적 주민은 비교적 적대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체제의 차원에서 북한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북한의 일반 인민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동포로서 통일의 미래를 이어가야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난다.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주민에 대해서는 동포로서의 연민과 공감을 갖고 있는 이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장차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적 가치를 포용하는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기여한다. 이런 독재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김정일을 비롯한 소수의 북한 엘리트들은 대단히 억압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한 동포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애정과 민주화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 6. 동포 이미지

동포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같은 동족, 단일민족의 일부분으로

느끼는 것이다. 남북은 현재 일시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 민족이며 같은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동족공동체로서 궁극적으로는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야하는 대상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현재 국력과 문화 양 방면에서 모두 남한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앞서본 동반국 이미지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동포 이미지는 북한 정부의 허약함과 문화적 낙후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히 남한 및 서방세계와 대화할 의지를 가진 합리적 협상 파트너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야만국이나 쇠퇴국의 이미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족공동체인 만큼 북한 지도부는 결코 어리석거나 비이성적이지 않으며, 지금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북한의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며 쉽게 북한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설사 김정일이 사망한다고 해도 북한 체제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포 이미지와 논리적으로 친화력을 갖는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검토한 각각의 이미지 유형은 매일 매일의 정보나 상황변동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는 상대적 고정성을 갖는다. 그것이 이미지인 까닭에 객관적 사실이나 합리적인 계산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할 수도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지부조화를 회피하는 메커니즘이 되기도 하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동원논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독립변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이미지 유형과 북한에 대한 정서적 태도 및 평가, 그리고 특정한 정책에 대한 선호 간에는 높은 친화력이 예상된다.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주어지는 정보나 사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가 달라지며 이는 정책적 선호나 정치적 지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표는 이념형적으로 구성된 북한 이미지 유형과 특정한 감정적 태도, 그리고 정책선호의 관련성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일단 이념형적 차원에서 추론된 이런 연관성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 결과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표 3〉 북한 이미지와 감정 및 정책선호의 상관성

구조적 관계인식				이미지	감정	정책선호
양립 가능성	상대적 국력	문화적 지위	민족 동질감			
갈등	북=남	북=남	no	적대국	분노, 적대감	공격, 봉쇄
갈등/협력	북<남	북<남	no	종속국	멸시, 경멸	지원, 착취, 이용,
갈등	북>남	북<남	no	야만국	공포, 불안	자기방어, 저항
협력	북=남	북=남	yes	형제국	신뢰, 존경	공조, 협조
협력/갈등	북<남	북<남	yes	독재국	경멸, 이중성, 도움	흡수, 체제전환
협력	북<남	북=남	yes	동포	동정, 이해	보호, 지원, 양보

#### IV. 데이터와 척도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의식과 이론적 논의, 개념적 구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남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그 각 이미지는 이미지 이론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구조적 관계인식의 차원들과의 연관성을 띄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감정은 또 각기 어느 이미지에 결부되는지, 이미지와 대북



정책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를 위해 사용된 조사 방법을 개괄하고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국가 이미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이미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정량적 연구는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 정부 및 외교정책 결정자의 이미지를 추적하는 연구였다. 실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정량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특히 한 국가의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본격적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이미지를 연구한 사례는 본 연구가 세계적으로도 최초라고 할 수 있다(Bilali 2010, 276쪽).

이 조사를 위해 우선 북한에 대한 구조적 관계인식, 북한의 국가 이미지, 북한에 대한 감정, 대북 정책에 대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실제 조사에 앞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과정을 거쳤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설문문항을 조정한 후 전국 단위의 본 조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2010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 갤럽이 조사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모집단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였다. 다단계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82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대 1 개별 면접조사 방식이 이용되었다. 예비조사에서 점검과정을 거쳐 몇몇 설문 문항의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설문 내용은 크게 보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51.5%, 여성이 48.5%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1%, 30대가 24.3%, 40대와 50세 이상이 각각 25.3%와 28.3%를 차지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29.5%였고,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29.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머지 41.3%는 자신의 정치적성향을 중도라고 답했다.

## 1. 이미지 척도

이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목표한 것이 북한 이미지 및 정책평가와 관련한 유의미한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이한 북한 이미지를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 향후 경험적 연구에서 준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를 갖춘 문항이 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총화척도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크론바  $\alpha$ 를 활용하여 각 문항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고 가장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적당한 분량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크론바  $\alpha$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척도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높아 척도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높은 크론바  $\alpha$ 은 응답자들이 그 척도에 포함된 설문 문항들에 대해 일관된 답변을 하였음을 뜻한다. 이 연구의 본 조사에서 측정된 북한의 여섯 가지 국가 이미지의 크론바  $\alpha$ 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야만국 이미지 척도의  $\alpha$ 값은 0.90이었으며 적국 이미지는 0.86, 동반국은 0.74, 종속국은 0.72로 각각 측정되었다. 그리고 독재국 이미지의  $\alpha$ 값은 0.77였고, 동포 이미지의 경우는 다른 척도에 비해 약간 낮은 0.69를 기록했지만 의미 있는 척도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크론바  $\alpha$ 의 값은 척도에 포함된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며, 많은 심리 척도가 20개에서 30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를 동원하여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각 이미지 척도에 사용된 변수 수가 다섯 개에서 일곱 개에 그친 이 연구의 각 이미지별 척도는 상당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북한 이미지 총화척도(summated scale)

적국 이미지 척도( $\alpha=0.86$ )
1. 지금까지 소행으로 봐서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다.
2. 북한은 이기적이며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는 나라다.
3. 남한이 평화적으로 접근하면 북한은 그것을 이용해서 남한을 등쳐먹으려 할 것이다.
4. 남한이 틈을 보이면 북한은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5. 북한은 남한에 적대적이며 항상 악의적으로 대하고 있다.
야만국 이미지 척도( $\alpha=0.90$ )
1. 북한은 다른 나라(혹은 남한)에 피해를 주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꼭 하고야 만다.
2. 북한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른 나라(혹은 남한)로부터 빼앗는다.
3. 북한은 거칠고, 무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4. 북한 지도부는 무자비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5. 북한 지도층은 법을 멋대로 무시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6. 북한 사회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라 매우 혼란스럽다.
7. 북한의 국력이 더 강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험해질 것이다.
종속국 이미지 척도( $\alpha=0.72$ )
1. 북한 사람들은 순진하고 기본적으로 착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남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2. 북한 사람들도 좀 더 잘살고 싶어 하지만 무능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3. 북한에도 온건하고 책임감 있는 엘리트들이 있어서 강경파와 대립하고 있다.
4. 북한의 온건파들은 남한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
5.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부러워한다.
6. 북한의 장래를 걱정하는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들과는 달리 남한과 협력하고 싶어한다.
동반국 이미지 척도( $\alpha=0.74$ )
1.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원하고 있다.
2. 북한은 자신의 이익만 챙길 뿐 남한과의 협력에는 무관심하다(역코딩 항목)
3. 북한은 남한과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한다.
4. 북한은 남한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다.
5. 북한은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이며 조건이 맞는 상대와는 타협도 할 수 있다.
6. 북한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남한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독재국 이미지 척도( $\alpha=0.77$ )
1.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을 매우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2. 국제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정권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3. 햇볕정책이 아니었다면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을 것이다.
4.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의 실체를 알면 쉽게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5.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인다고 해도 결코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 북한 주민들은 공포 때문에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척 할뿐, 실제로는 불만에 차있다.
7. 북한이 지금은 좀 사정이 어렵지만, 결코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는다.

동포 이미지 척도( $\alpha=0.69$ )
1. 북한 사람들도 우리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2.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외교적 수단일 뿐, 정말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라기보다는 체제안정과 개방이다.
4. 북한 지도부는 어리석거나 비이성적이지 않다.
5. 북한은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민족 통일을 원한다.
6. 북한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 쉽게 내부적으로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 V. 북한 이미지의 유형별 분포

### 1. 전반적 검토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것이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나 태도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북한 이미지의 성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

〈표 5〉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사된 여섯 가지 이미지 척도의 평균 값과 표준편차를 비교하고 있다. 각 척도는 다섯 개에서 일곱 개까지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표 4>의 가장 오른쪽 열에서는 각 이미지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척도에 포함된 변수의 수로 나누어 표준화시킨 값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표준화하였을 때 이론적으로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7이다. 그리고 표준화된 평균값이 클수록 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북한의 국가 이미지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화된 평균값
적대국	5	36	25.78(6.65)**	5.16(1.33)
야만국	7	49	35.38(8.92)	5.05(1.27)
종속국	9	42	29.34(5.58)	4.19(0.80)
동반국	6	42	20.81(6.38)	3.47(1.06)
독재국	12	49	36.36(6.68)	5.19(0.95)
동포형제	6	42	23.79(6.35)	3.96(1.05)

\* N = 823.

\*\*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이렇게 표준화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값을 보인 북한의 국가 이미지는 독재국 이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국 이미지와 야만국 이미지도 독재국 이미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평균값이 측정되었다. 반대로 가장 평균값이 낮은 이미지는 동반국 이미지로, 그 표준화된 평균값 3.47는 중간값인 4보다도 낮았다. 이는 동반국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상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반면 종속국 이미지는 평균 4.19로 중간값을 약간 넘는 정도였고, 동포 이미지의 경우는 중간값과 거의 비슷한 3.96의 평균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수준에서 각 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한 <표 5>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비교된 여섯 가지 이미지 중 국민들에게 가장 공감을

연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가 주로 부정적인 범주, 즉 독재국, 적대국, 야만국 이미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응답자들 중에 동반국 이미지나 동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6>는 동포 이미지 척도의 상위 25%를 기록한 응답자들의 각 이미지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 상위 25% 그룹은 북한을 가난하지만 도와주어야 할 동포 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강한 집단인데 이들은 다른 이미지에 비해 동포 이미지를 가장 뚜렷하게 강조하지만 그 수치는 5.33 수준이어서 뒤에서 살펴볼 적대국 이미지에 비해 그 강도와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이 집단이 지니는 다른 이미지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독재국 이미지나 적대국 이미지도 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동포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람들 역시 다른 이미지와 중첩된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6> 동포 이미지 상위 25%의 이미지 평균 비교\*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화된 평균값
적국	5	36	24.26(7.89)**	4.85(1.58)
야만국	7	49	33.65(10.67)	4.81(1.52)
종속국	16	42	31.24(5.30)	4.46(0.76)
독재국	13	49	36.07(7.44)	5.15(1.06)
동반국	11	42	25.56(6.02)	4.26(1.00)
형제동포	29	42	31.98(2.93)	5.33(0.49)

\* N = 188.

\*\*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같은 방식으로 적국 이미지 척도의 상위 25% 그룹을 각 이미지 평균 점수를 내보면 이 상위그룹의 적국 이미지 평균값은 6.74로, 거의 이론적

최대값인 7에 근접한다(〈표 7〉 참조). 위에서 살펴본 동포 이미지 상위 그룹의 평균값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적국 이미지 척도가 상대적으로 동포 이미지 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고 뚜렷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을 ‘적국’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북한을 ‘동포’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보다 훨씬 명확하다. 또 적국 이미지 상위 그룹도 일부 동반국 이미지와 동포 이미지를 함께 지닌 경우가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아 동반국 이미지와 동포 이미지의 평균이 중간값인 4보다 한참 낮은 3.04와 3.69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갖고 있는 적국 이미지와 이 두 이미지는 명백히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표 6〉에서 동포 이미지 상위 그룹의 평균값은 다른 이미지 평균값보다 높긴 하지만, 그 평균값들 사이의 차이가 〈표 7〉에서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지는 않다. 이는 동포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적국 이미지보다 다른 이미지들과 혼재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표 7〉 적국 이미지 상위 25%의 이미지 평균 비교\*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화된 평균값
적국	32	36	33.69(1.27)**	6.74(0.25)
야만국	27	49	44.33(4.20)	6.33(0.60)
중속국	11	42	31.62(6.30)	4.52(0.90)
독재국	26	49	41.62(5.08)	5.95(0.73)
동반국	6	37	18.23(7.76)	3.04(1.29)
형제동포	6	42	22.16(7.86)	3.69(1.31)

\* N = 182.

\*\*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정리해보면, 한국인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국가 이미지는 독재국, 적국 혹은 야만국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주

요 이미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을지라도, 동반국이나 동포, 종속국 이미지의 존재도 확인되었다. 종합을 한다면 북한 이미지는 단일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거나 단일 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소 양가적인 이미지의 중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 표는 각 이미지 유형간의 내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표 8〉 각 국가 이미지 간 상관관계

	적국	야만국	종속국	독재국	동반국	동포
적국	1					
야만국	.794**	1				
종속국	.174**	.218**	1			
독재국	.551**	.601**	.317**	1		
동반국	-.360**	-.380**	.142**	-.272**	1	
동포	-.284**	-.252**	.203**	-.196**	.624**	1

\*\*  $p < 0.05$ .

〈표 8〉에 나타난 각 국가 이미지 간 상관관계를 보면, 적국 이미지, 독재국 이미지, 그리고 야만국 이미지는 서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들 이미지는 동반국이나 동포 이미지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또 동반국 이미지와 동포 이미지도 서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이미지들을 적국, 독재국, 야만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동반국, 동포라는 긍정적 이미지의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 반면, 종속국 이미지는 양쪽 집단 어느 쪽과도 그다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종속국 이미지를 또 다른 세 번째 집단으로 분류한다면, 이 여섯 가지의 이미지들은 북한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갈리는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집단 및 북한에 대한



실용적 태도로 대표되는 종속국 이미지의 세 가지 큰 부류로 정리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2. 세대별, 학력별, 이념별 검토

### 1) 세대별 이미지 차이

〈표 9〉는 각 연령대별 이미지의 분포상황을 표준화한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군에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연령별 차이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적국 이미지나 야만국 이미지, 종속국 이미지는 연령대별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 50대 이상에서 그 강도가 확연하게 강화된다. 반면 폭정하의 동족, 형제국, 동포 이미지 등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세대 변수가 주로 부정적 이미지의 강약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과는 상대적으로 강한 연계가 없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9〉 연령별 이미지 표준화 점수 평균값 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적국	4.81 (1.32)	5.01 (1.26)	5.2 (1.35)	5.52 (1.29)
야만국	4.67 (1.24)	4.94 (1.18)	5.09 (1.32)	5.44 (1.24)
종속국	4.6 (0.96)	4.83 (0.91)	4.97 (0.9)	5.11 (0.88)
독재국	5.11 (0.96)	5.04 (0.95)	5.12 (0.9)	5.46 (0.96)
동반국	3.51 (0.99)	3.52 (1)	3.51 (1.14)	3.34 (1.09)
동포	3.8 (1.02)	4.06 (1.05)	4.02 (1.09)	3.96 (1.06)

\*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

## 2) 교육수준별

북한 이미지는 교육수준에 따라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오히려 세대변수보다도 학력변수의 영향이 더 크게 확인된다. 대학졸업자 이상의 고학력군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값이 저학력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다음 표는 각 이미지 항목에 대한 학력별 반응차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교육수준별 이미지 표준화 점수 평균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적국	5.66 (1.18)	5.32 (1.28)	4.88 (1.35)
야만국	5.5 (1.18)	5.15 (1.23)	4.85 (1.3)
종속국	5.1 (0.87)	4.98 (0.88)	4.76 (0.97)
독재국	5.54 (0.82)	5.21 (0.95)	5.09 (0.97)
동반국	3.5 (0.99)	3.45 (1.07)	3.48 (1.08)
동포	4.03 (1.01)	3.98 (1.02)	3.94 (1.11)

\*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세대변수와 유사하다. 즉 적국, 야만국, 종속국, 독재국 같은 부정적 이미지군에서 학력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대간 차이보다 학력 차이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특히 부정적 이미지가 학력이 높아질수록 매우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도 동반국이나 동포집단 같은 긍정적 이미지는 학력이 높아진다고 해도 크게 증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변수가 부정적 이미지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는 별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 3) 정치이념별

한국의 북한관련 갈등이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사이의 이념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은 매우 많다. 이런 주장은 일부 사실이기도 하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증폭되거나 엄밀한 개념적 성찰 없이 이루어진 논란도 포함되어 있다. 과연 북한관련 이미지나 감정, 정책선호 등에 이념적 성향은 어느 정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가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다음의 표를 보자.

〈표 11〉 정치 이념별 이미지 표준화 점수 평균

	진보	중도	보수
적국	4.84 (1.41)	5.18 (1.29)	5.46 (1.26)
야만국	4.77 (1.36)	5.1 (1.23)	5.31 (1.21)
중속국	4.96 (0.89)	4.86 (0.93)	4.89 (0.96)
독재국	5.03 (0.99)	5.19 (0.63)	5.39 (0.93)
동반국	3.66 (1.05)	3.98 (1.05)	3.21 (1.1)
동포	4.16 (0.99)	3.98 (1.05)	3.75 (1.1)

\*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이념별로 북한 이미지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적국, 야만국, 독재국과 같은 부정적 함의가 강한 이미지는 이념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수층에게 북한은 적대적이고 야만적이며 독재적인 대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고 진보층은 그런 이미지의 강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특징을 보여준다. 또 동포 이미지나 동반국 이미지가 보수층에 비해 진보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이미지와 이념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진보진

영이 부정적 이미지보다 동반국이나 동포 이미지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진보층 역시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 따라서 전체 응답 패턴에서는 이념별 차이보다도 유사성이 더 크게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이미지를 둘러싼 이념적 차이는 보다 제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4) 정치적 성향(대통령 직무평가)별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로 확인되는 정치적 성향이 북한 이미지와 강한 상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 표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잘했다고 보는 응답자와 잘못했다고 보는 응답자 간에 북한 이미지 유형이 매우 크게 차이를 보인다.

〈표 12〉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북한 이미지 표준점수 평균

	잘못했음	보통	잘했음
적국	4.87 (1.37)	5.28 (1.19)	5.69 (1.38)
야만국	4.8 (1.31)	5.16 (1.2)	5.53 (1.21)
종속국	4.88 (0.97)	4.86 (0.82)	5.01 (1.08)
독재국	5.03 (0.98)	5.22 (0.89)	5.61 (0.93)
동반국	3.59 (1)	3.43 (1.08)	3.21 (1.14)
동포	4.03 (1.02)	3.96 (1.03)	3.79 (1.24)

\*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하여 적국, 야만국, 독재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또 동반국이나 동포 이미지 같은 긍정적 이미지도 상대적으로 약

하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약하다. 이 차이는 앞서 살펴본 이념적 차이보다도 더 강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앞의 이념별 검토에서 언급한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상대적 차이가 꽤 크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반응과 전혀 다른 정도까지 이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대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북한 이미지에 대한 지지는 부정적 이미지에 비해 낮고 그런 경향성은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13〉 개별 북한 이미지와 연령, 교육, 이념, 대통령 직무평가 상관관계

	적국	야만국	종속국	독재국	동반국	동포
연령	.197**	.215**	.199**	.140**	-.056	.042
대통령직무 평가	.250**	.240**	.018	.228**	-.158**	-.105**
이념성향	.185**	.173**	-.049	.145**	-.166**	-.140**
교육수준	-.212**	-.172**	-.128**	-.136**	.014	-.014

\*\* :  $p < 0.01$ .

위의 〈표 13〉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령, 대통령 직무평가, 이념성향, 그리고 교육수준과 개별 북한 이미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연령변수는 동반국 이미지와 동포 이미지를 제외한 기타 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을 적이나 야만국, 종속국, 혹은 독재국으로 볼 확률이 높았다.

대통령직무평가는 종속국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이명박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동반국이나 동포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대통령 직무평가와 이념성향은 북한 이미지와의 상관관계에서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념성향도 마찬가지로 종속국 이미지를 제외한 다른 이미지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수준 또한 북한 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교육수준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 즉 적국, 야만국, 종속국, 독재국 이미지들과만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동반국과 동포 이미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을 확률은 낮지만, 반면 교육수준이 높다고 해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 VI. 맺음말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허만의 이미지 이론의 틀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민족동질감이라는 하나의 요인을 더하여 북한 이미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자는 것이고, 둘째,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감정과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적국, 야만국, 종속국, 동반국, 독재국, 동포 이미지의 여섯 가지 이미지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이렇게 분류된 이미지 유형은 관련 대북의식이나 정책적 지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지 측정을 위해 활용된 문항들도 척도로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ding이 강조했듯, 우리의 감정과 행태는 그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주관적 지식, 즉 이미지에 의존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불충분하고 대북정책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가

능한 상황에서도 개개인의 판단과 생각이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고 재구성되는 바탕에는 이런 고착된 이미지, 정서적 태도가 깔려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관련 담론이나 소통의 과정에서 이론적이고 공리적이며 합리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남북간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정서와 감정의 결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노력이 수반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진보-보수의 틀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대북인식, 한국인의 자기인식, 통일미래에 대한 태도 등에 작용하는 사회심리학적 변수, 집합감정의 요소들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소통과 통합의 문화, 포용적 이미지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접수: 2011년 4월 29일 / 수정: 2011년 5월 23일 / 게재확장: 2011년 5월 27일

## 【참고문헌】

-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 박명규 · 김병로 · 강원택 · 이상신 · 박정란 · 정은미.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2 (2), 1998.
- . “비대칭적 동맹에서의 갈등: 정치심리학적 측면.” 『국방연구』 (1), 2007.
- 이상신. “천안함과 대외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통일의식조사 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2010.
- 최종건.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 예측에 관한 비판적 평가: 이론중심적 사고를 중심으로.” 『국제평화』, 3 (2), 2006.
- Alexander, Michele G., Marilyn B. Brewer, and Richard K. Hermann. “Images and Affect: A Functional Analysis of Out-Group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 1999.
- Alexander, Michele G., Marilyn B. Brewer, and Robert W. Livingston. “Putting Stereotype Content in Context: Image Theory and Interethnic Stereotyp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6), 2005.
- Alexander, Michele G., Shana Levin, and P. J. Henry. “Image Theory, Social Identity, and Social Dominanc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Motives Underlying Inter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26 (1), 2005b.
- Bilali, Rezarta. “Assessing the Internal Validity of Image Theory in the Context of Turkey-U.S. Relations.” *Political Psychology 9999* (9999), 2010.
- Bloom, William. *Personal Identity,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Press, 1990.
- Boulding, K. E.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 (2), 1959.
- Boulding, Kenneth Ewart. *The Image ;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6.
- Brewer, Marilyn B.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or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 (3), 1999.



- Burn, Shawn M. and Stuart Oskamp. "Ingroup Biases and the U.S.-Soviet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45 (2), 1989.
- Caprioli, Mary and Peter F. Trumbore.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9 (5), 2005.
- Converse, Jean M. and Stanley Presser. *Survey Questions: Handcrafting the Standardized Questionnair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6.
- Cottam, Martha L.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The Influence of Cogni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6.
- . *Images and Intervention: U.S. Policies in Latin America*.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4.
- Cottam, Martha L. and Richard W. Cottam. *Nationalism and Politics: the Political Behavior of Nation State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1.
- Cottam, Martha L. and Zhiyu Shi. *Contending Dramas: a Cognitive Approach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Praeger, 1992.
- Cottam, Richard W. *Foreign Policy Motivation: a General Theory and a Case Stud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7.
- DeVellis, Robert F.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lif.: Sage, 1991.
- Fabick, Stephen D. "Two Psychologically Based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Enemy Images and US & THEM." *Journal for Social Action in Counseling & Psychology*, 1 (1), 2007.
- Gibson, J. L. and A. Gouws. "Truth and reconciliation in South Africa: Attributions of blame and the struggle over aparthei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 (3), 1999.
- Gibson, James L. and Amanda Gouws. *Overcoming intolerance in South Africa: experiments in democratic persuasion*. 1st pbk, ed.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Grinker, Roy Richard. *Korea and Its Futures*. St. Martin Press, 1998.
- Hal, Rodney Bruce Hall. *National Collective Ident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 Hermann, Richard. "The Power of Perceptions in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Do Views of the Soviet Union Determine the Policy Choices of American Lead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4), 1986.

- Herrmann, Richard K. *Perceptions and Behavior in Soviet Foreign Policy*.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5.
- Herrmann, Richard K. and Michael P. Fischerkeller.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 (3), 1995.
- Herrmann, Richard K., James F. Voss, Tonya Y. E. Schooler and Joseph Ciarrochi.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 (3), 1997.
- Holt, R. R. "College-Students' Definitions and Images of Enem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5 (2), 1989.
- Holt, R. R. and B. Silverstein. "On the Psychology of Enemy Images - Introduction and Over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45 (2), 1989.
- Hoyt, Paul D. "The "Rogue State" Image in American Foreign Policy." *Global Society*, 14 (2), 2000.
- Hurwitz, J. and M. Peffley. "Public Images of the Soviet-Union - the Impact on Foreign-Policy Attitudes." *Journal of Politics*, 52 (1), 1990.
- Jervis, Robert and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The Logic of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Keen, Sam. *Faces of The Enemy - Reflections of The Hostile Imagination: The Psychology of Enmity*. 1st ed.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6.
- Koopman, Cheryl, Jack Snyder and Robert Jervis. "American Elite Views of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5 (2), 1989.
- Mackie, Diane M. and Eliot R. Smith.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2.
- Marcus, George E. *With Malice toward Some: How People Make Civil Liberties Judgments*. Cambridge ; New York,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Murray, S. K. and J. A. Cowden. "The role of "enemy images" and ideology in elite belief system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 (3), 1999.
- Nadler, Arie, Thomas E. Malloy and Jeffrey D. Fisher.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O'Reilly, K. P. "Perceiving Rogue States: The Use of the "Rogue State" Concept by U.S. Foreign Policy Elites." *Foreign Policy Analysis*, 3 (4), 2007.
- Oppenheimer, Louis. "The Development of Enemy Images: A Theoretical Contribution." *Peace & Conflict*, 12 (3), 2006.
- Parkhurst, Jocelyn. "Dependent of the Enemy to Rogue State Image: The Success and Failure of Deterrence in Iraq and North Korea." *I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arriott Hotel, Portland, 2004.
- Rieber, R. W. *The Psychology of War and Peace: the Image of the Enemy*. New York: Plenum Press, 1991.
- Silverstein, Brett and Catherine Flamenbaum. "Biases in the Perception and Cognition of the Actions of Enem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5 (2), 1989.
- Spector, Paul E. *Summated Rating Scale Construction: An Introduction*.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1992.
- Spillmann, Kurt R. and Kati Spillmann. "On Enemy Images and Conflict Escal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43, 1991.
- Stanton, J.J. "Terrorism in Cyberspace: Terrorists Will Exploit and Widen the Gap Between Governing Structures and the Public."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2002.
- Stuart, Douglas and Harvey Starr. "The "Inherent Bad Faith Model" Reconsidered: Dulles, Kennedy, and Kissinger." *Political Psychology*, 3 (3/4), 1981.
- Yatani, Choichiro. "With Us or Against Us: American Images of the Enemy in a Global Community." *Conference Papers - Law & Society: 1*, 2009.
- Yatani, Choichiro and Dana Bramel. "Trends and Patterns in Americans' Attitudes Toward the Soviet Un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5 (2), 1989.

Abstract

## Phenomena and Images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North Korean Images

Park, Myoung-Kyu(Department of Sociology, SNU)

Lee, Sang-Shin(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NU)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how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or North Korean policy orientation, and the South-South conflicts could be influenced by North Korean Images. Boulding defines images as "subjective Knowledge" (1956, 5~6). Images as subjective knowledge are formed and constructed through past experience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images are unchangeable. Rather, Boulding states that images and society influence each other in continuous interactions.

Hermann, who inherits Boulding's image theory, tries to categorize international Image by quantitatively measuring them. Based on Hermann's image theory, this study analyzes various types of North Korean images on South Korean citizens' mind.

**Keywords:** North Korea, Identity, Image Theory, Public Opinion Survey, Scale Development.

**박명규** .....

서울대학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통일평화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2009 통일의식 조사』, 『남북통합지수 개발 기초 연구』(공저), 『21세기 한국의 발전전략』(공저), “한국의 민족담론과 통일문제”, “분단체제, 세계화, 평화민주주의”,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등이 있다.

**이상신** .....

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작으로 “Authoritarians at Risk: A Re-Examination of Authoritari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Prospect Theory”, “직접민주주의와 소수자 차별: 2007년 미국 대선과 미국의 동성결혼 금지법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정치심리학: 역사와 현황” 등이 있다.